

청소년들 지구 살리기 인식 높인다

전북교육청, 내일 '기후 행동' 활동가들과 만남 행사 도내 환경동아리 등 참여, 학교별 실천과제 공유의 장

전북 청소년들이 '지구 살리기'에 목소리를 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 2중 강당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활동 학생과 학생회장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지구살리기 실천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에 다친 기후 위기에 대해 불구하고 '지금은 바빠서', '다른 사람이 해결할 문제라서'라며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나부터 나서서 행동하는 청소년 기후 행동 활동가들이 함께 한다.

이들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도 방관하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청소년들의 기후행동에 대한 실천의지를 확산하고 자발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활동가 김보림 씨가 강사로 나서 '청소년 기후행동 소송 진행사례'를 소개하고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어울누리' 환경사업 ▲기후위기 관련

'이이스버킷 챌린지' 사업 등에 대한 학생회장단 토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기후 행동 활동가들과 만남을 통해 전북 청소년들의 지구 살리기에 대한 인식을 높여갈 것"이라며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생태감수성을 기르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사회를 바꾸는 민주시민의 모형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학생들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최우수상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학과장 이의평) 4학년 정하빈 학생과 3학년 전성수·이승환 학생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방청 주관 '제9회 대한민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한 4학년 정하빈, 3학년 전성수·이승환 학생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국민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고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향상을 기여해왔다.

경연은 2~3명이 한 팀을 이뤄 심정지 발생 상황을 연극 형태로 연출하고, 심폐소생술 실시 과정을 이야기식으로 전개해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운영했다.

심사위원은 응급의학과 교수 등 의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으며, 심폐소생술 기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무대 표현력, 청중평가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정했다.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팀은 '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패러디해 심폐소생술 상황을 교육적으로 표현했으며, 심폐소생술 시에도 헬멧표시 애니모터를 블루투스 연결해 흉부압박의 깊이와 시간, 인공호흡의 공기량 등을 측정해 정확도 높은 심폐소생술을 선보이며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정하빈 학생은 "방학 중 매일 연습하고 노력한 끝에 우수한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소방안전공학과로서 그동안의 연습해온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전공 지식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학과장 이의평) 4학년 정하빈 학생과 3학년 전성수·이승환 학생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성적 중심 진학지도 벗어나 바른 진로 선택”

전북교육청, 중등 교장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6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020 중등 교장(감)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중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학교장들의 진로진학지도 능력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또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및 고교 선택을 위한 학교장 지원으로 진로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이번 교육평론가가 '교육경쟁과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해, 송광용 원광고 교사가 '진로와 진학지도의 흐름'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특히 송 교사는 고등학교 유형과 특성 진로 적성에 따른 진학지도 방법, 고입전형 및 대학입시의 변화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 중고등학교 진로교육의 다양한 수업 사례 소개 등을 통해 학교장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채준석 장학사가 전북교육청의 진로교육 추진현황

및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허클베리핀 진로탐험대, 중3 진로진학 특강 강사 양성 사업, 농어촌 중3 대상 찾아가는 진로상담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적 중심의 진학에서 벗어나 바른 진로 선택으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학생주도의 계획과 실천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진로교육 관련 다양하고 질 높은 연수로 모든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사업단과 두지프로바이오틱스(주), 글로벌푸드컬처협동조합은 프리미엄 정육 편집숍 '부처스픽' 과 8일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관련 분야 공동 개발 연구와 '두지포크'의 마케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대 '두지포크' 수도권 진출

프리미엄 정육 편집숍 '부처스픽' 과 산학협력 협약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공학부(학과장 이의평) 이하 전북대 사업단에서 개발한 프리바이오틱스 돈육 '두지포크'가 수도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전북대 사업단과 두지프로바이오틱스(주), 글로벌푸드컬처협동조합은 프리미엄 정육 편집숍인 '부처스픽' 과 8일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관련 분야 공동 개발 연구와 '두지포크'의 마케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부처스픽'은 국내의 검증된 최상 품질의 고기를 엄선해 워터에 이징과 드라이이징 등의 방법으로 숙성 판매하는 신개념 정육 편집숍이다. 서울 압구정동을 비롯한 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육점 환경에서 벗어나 카페형의 부피리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구성해 신세대 주부층 등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대 사업단

이 갖고 있는 '예코 프리바이오틱스' 솔루션이 공유된다. 이는 가족의 질병과 약취, 분노차단, 생산성 저하 등 축산업계가 가진 4대 난제를 유용 미생물로 해결하는 신개념 축산기술이다.

양돈 농가에서 고농도의 프리바이오틱스를 사료용, 음수용, 축사 소독용 등 광범위하게 활용함으로써 돼지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돼 고품질·고영양의 육류 생산이 가능하다. 육질분석 결과 시중 돈육에 비해 부드러운 잡내가 없었으며, 오메가 3등 불포화 지방산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네 기관은 예코 프리바이오틱스 솔루션 기술을 활용하고, 최상위 품질의 돈육에 대한 산업화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건강한 축산 먹거리를 공급을 위해 고품질 제품 개발과 공동 마케팅 등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마한교육문화회관, 14일까지 독서문화행사

마한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형대)은 6일부터 14일까지 독서문화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56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리고 도서관 이용 및 독서 생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코로나19 지역확산으로 도서관주간 기간을 8월로 연기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만큼 안전한 행사를 위해 프로그램마다 소수 인원으로 참여 희망자를 제한했다. 이에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을 받아 참여명단을 확보한 후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방학 도서관주간 프로그램은 신나는 여름방학 2쇄 공연, 김소연 작가와의 만남, 그래픽과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 체험, 원화전시 등 다양한 행사로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스크 착용은 기본생활 수칙인 만큼 그래픽과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손바느질로 만들어보는 마스크 만들기 체험과 마스크 분실방지 및 목걸이처럼 휴대가 용이한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체험 등의 마스크 관련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정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